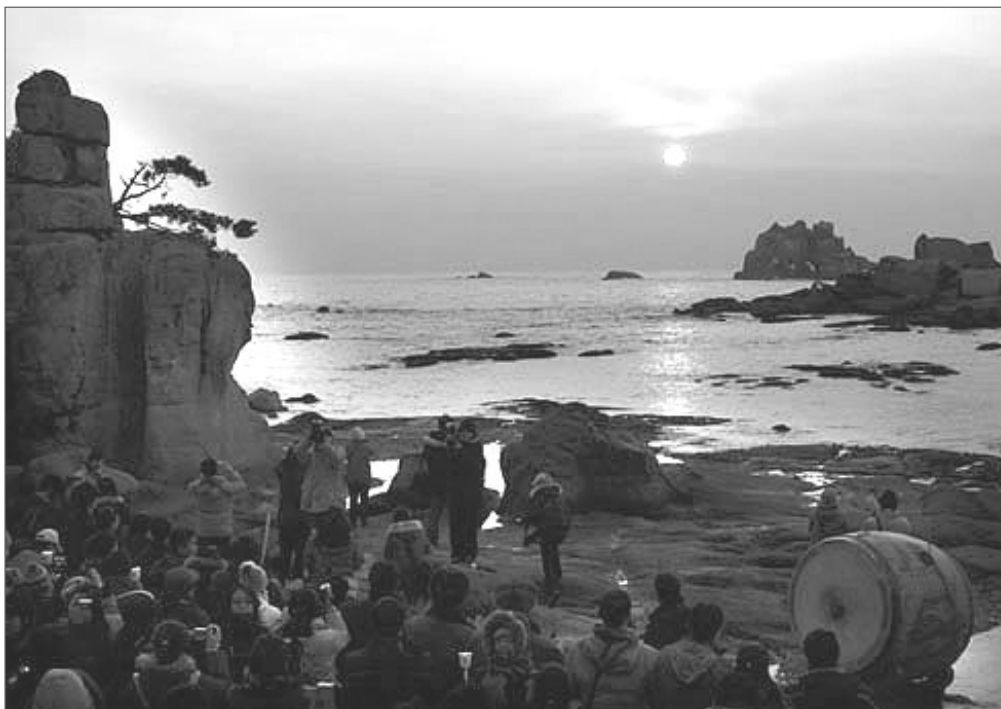




희망새해! 힘찬시작!



▲ 2006년 1월1일 금강산해금강의 일출 (통일뉴스)

· 목 · 차 ·

새해인사 권오현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전창일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임미영 • 6 / 서시 · 2006년 序詩 이기형 • 10 / 양심수에게 보내는 편지 홍세
희 • 11 / 감옥에서 보내는 새해인사 이용직 외 • 12 / 회원마당 조현수 • 14 / 일합니다 • 15 / 인터뷰 임미영 • 16 / 기고 장석원 • 19 / 시사만평 • 21 / 현재 구속중인 양
심수 명단 • 23 / 이란일이 있었어요 • 25 / 재정보고 • 33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4

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o.or.kr 이-메일 : yangsimso@hanmail.net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중생존권은 반제 반전 반세계화 투쟁으로

양심수 후원회 회원 여러분!

다시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뜻한 일들 모두 이루어지기 빌겠습니다.

참으로 숨 가쁘게 지내온 한 해였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 사정과 서로 다른 사회적 조건에서도 양심수 석방과 후원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결같이 큰 성원과 헌신을 다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펙(APEC) 정상회의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끝나고 농민열사를 땅에 묻으며 해가 바뀌었지만 이땅의 농업, 농촌과식량주권을 지키려는 농심의 투지는 잠재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방 농정에 항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민족농업을 지키려다 경찰폭력으로 두 농민이 죽임을 당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무한 경쟁의 자유무역체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WTO 체계가 존재하고 이에 종속된 수입 개방이 허용되는 한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은 멈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노동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에는 새해 첫날부터 참담한 현장 소식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매그너칩>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어 거리로 내 쫓긴 채 1년이 넘게 복직을 위한 농성 투쟁을 해오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흑한과 폭설의 한 겨울을 두 번째 겪고 있으면서 '자본의 광폭한 탄압과 횡포, 민중의 지팡이어야 할 경찰이 구사대 용역 강패가 되어 폭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86명의 조합원에게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15명이 재판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재교 지회장은 청주

교도소에서 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부지회장, 사무장 또한 <하이닉스> 공장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있는 한 주부는 수도, 전기가 끊기고 주택 임대료까지 밀려 거리고 쫓겨난 채 '언제까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가! 끝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야 하는가!'라며 남편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두 농민이 공권력에 의해 죽임당한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부른 개방농정과 비정규 노동현실은 다같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체제와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일부에서는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며 자주통일의 방해자이면서 끊임 없는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자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 미국이야말로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의 일터를 빼앗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마저 빼앗아 결과적으로 농업 농촌을 파탄내고 농민을 농토에서 쫓아내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시켜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익을 극대화하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무역장벽을 허무는 무관세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뿐 아니라 자유로운 자본유입을 강조합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국내 금융 산업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며 통·폐합되면서 외국자본이 사정없이 침투했고 그 투기자본들은 단기수익만 챙기면서 탈세, 탈법 등 금융 산업의 공공성을 갉아먹었습니다. 한 예로 투기자본인 '뉴브리지·캐피탈'은 1999년 제일은행을 5천억원에 인수하여 5년 만에 1조 1500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외국자본이 경영

하는 은행의 총 자산이 국내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의 8.5%에서 2004년에는 22.4%였고 국책, 특수은행을 빼면 2005년 10월말 현재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자본의 지배는 금융 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주식지분으로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어진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사회적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WTO 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파탄내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세밑 국회와 정치권은 또 다시 그들을 국민대표 기구로 뽑아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허리띠 조이며 어렵게 낸 세금으로 적지 않은 세비를 쓰고 있는 의원들이 반드시 할 일은 외면하고 해서는 안될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수구냉전·사대매국집단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빌미로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하는 시대 역행적 행패는 아예 제쳐 놓는다 해도 국정의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이 국민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는 외면한 채 자이툰부대 1년 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의, 평화에 반하고 주권국가의 자주성에도 역행하는 파병연장안 처리는 우리 모두를 패권주의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과 잔혹한 인권유린 등 범죄적 점령정책의 공범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올해엔 전민중적 투쟁으로 자이툰 부대 철거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2004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있었던 집권여당의 직무유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발의해 놓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1000여명이 영하의 칼바람 속에서 단식농성하며 폐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대로 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집권여당은 똑같은 되풀이를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처리할 일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며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 존립되고 있는 한, 언제라도 그 본성이 드러나 사나운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통일염원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강태운 민주노동당 고문이 75살의 노구임에도 이 법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학자적 양심으로 역사를 옳게 바라보고 있는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

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벌이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복역을 다녀온 송효원 13기 한총련 의장에게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를 물어 출도요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40여명에 이르는 한총련 대의원들이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많게는 8년까지 정치 수배로 쫓기고 있습니다. 2006년엔 보다 계획적이고 연속적이며 집중력을 다해 반드시 이 반통일 악법을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해는 조국광복 60돌이자 6.15 공동선언 5돌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군강점 60년을 청산하고 6.15 공동선언이 실질적 진전을 위해 힘차게 싸워왔습니다. 주한 미군 철거투쟁은, 미군강점 60년 청산 남·북·해외공동투쟁을 비롯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광주패트리엇기지반대투쟁, 한미연합전시증원계획과 을지포커스 렌지연습저지 투쟁, 부시방한 반대투쟁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3월 4일엔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평양에서 '6.15 공동선언 5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와 서울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가 열린 공간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 김일성주석 10주기 민간조문단 불허와 대규모 북주민 기획입국사태,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얼어붙었던 당국자 대화도 다시 복원되어 6.15, 8.15 행사에 당국자 대표단이 함께 했으며, 양측 단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과 평양 제주에서 남북장관급 회담이 진행되는가 하면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과 화상상봉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민간부분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문학예술인 종교인 등의 부문별 공동행사가 줄을 이었고, 특히 5.1 경기장에서 있는 대집단체조 '하리랑' 공연에 남녘에서 각계 각층 10,000여명이 관람했으며 제16

회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에 북측에서 선수단과 함께 대규모 청년학생협력단이 인천에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지난 한 해 100,000 명 가고오고 했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1,200,000여명 넘게 다녀왔습니다.

이와 함께 10억 달러가 넘는 남북교역이 있었고 개성공단에서 수천명의 남북노동자가 만든 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사업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해서도 안 되게 되었으며 자주평화통일로 가는 민족 공조의 탄탄한 토대를 쌓게 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

그러나 지구상에 제국주의 침략세력이 존재하는 한 한시라도 긴장을 풀거나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북사이의 화해 협력이 진전되는 것을 금지 않게 볼 뿐만 아니라 파탄내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일 제국주의와 그들의 패권적 군사동맹체였습니다. 2005년 1월 19일 미국무장관에 임명된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Corea 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북은 2,10일 핵무기 보유 선언과 함께 6자 회담 참석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자 회담 관련 당사자들의 각고의 노력끝에 9.19일 Corea 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과 국제원자력 기구(IAEA) 안전 조치에 복귀-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갖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를 조선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의 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은 핵무기 접수와 배치를 하지 않는다. 조선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 주장, 다른나라는 이를 존중 조선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 - 그밖에도 조미, 조일간의 관계정상화와 참가국들은 조선에 대한 에너지 지원 약속, 동북아연구평화 체제 협상, 공약대공약, 행동대 행동원칙으로 단계적

양식들을 합의 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대로라면 핵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갈등 해소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특히 남북 사이엔 6.15 공동선언 이행과 공동번영 자주통일로의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경수로 건설문제를 비롯하여 난데없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로 새해 들어 열 것으로 예상했던 5차6차 회담 전망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해 9.15일 이북이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 아시아'(BDA)를 통해 위조지폐를 유통시켰다며 이른바 저들의 애국법 311조에 따라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은행'으로 지정 사실상 대북금융제재를 감행했습니다. 위폐유통뿐 아니라 제조까지 했다고 못박으면서, 이북이 스위스산 시변색(視變色) 잉크와 일본과 프랑스에서 달러 인쇄기를 구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변색 잉크를 쓰는 나라는 90개국에 이르고 있어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본질을 익혀온 사람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위폐, 인권, 마약, 재래식 무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근거 없는 시비를 걸며 궁극적으로 체제전복을 노리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 같은 체제전복을 노린 경제 제재 말고 이른바 대북 인권공세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른바 '북인권법안'(2004.9)과 분명히 이북을 겨냥한 '민주주의 증진법'(2005.7)을 만들어 막대한 자금까지 투입, 각종 모략 책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이름으로 유엔 총회에 이른바 '북인권결의안'을 상정, 통과시켰습니다(12.16). 미국무성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지난 해 7.19 워싱턴에서 이른바 제1차 '북인권대회'를 열었고, 지난 해 12.8~10일엔 서울에서 2차 '북한인권국제대회' 소동을 벌였습니다. 북인권법이나 인권소동 출연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대북모략 선동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자는 제 조국을 배신하고 나온 황장엽 따위였으며 미국보수파 단체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티 회장, 허드슨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마이클 호르위츠, 주한미국대사 버시 바우 이른바 북한 인권대사 레이 레프코위츠 등이 나

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대북중상모략의 망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북한정권 유지비용(대북지원)이 붕괴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김○○은 권좌에 앉지도 못할 것이다’며 대북 체제전복 책동의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버시 바우는 12.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북한은 외화소득의 대부분을 범죄 행위에서 충당하고 있는 범죄 국가’라고 했는가 하면 12.12일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한·미정책 포럼’에서 ‘북한을 시장경제체제와 개방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전된 기술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증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정책을 제동 걸으려 했습니다. 또한 12.23일엔 ‘올해 초 한국경찰이 북한산 위조지폐를 대량 적발했다’며 ‘이러한 일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근거 없이 단정적인 망발을 했습니다. 정북 당국자는 곧 바로 ‘단정적으로 말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부시의 이복을 겨냥한 ‘다른 정권의 교체’ 필요성 발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폭군’이란 지칭, 곤돌리자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 ‘위험한 정권’ 등 발언 버시 바우의 ‘범죄정권’ 발언을 비롯한 미국 ‘네오콘’들의 대북모략망발은 정권 붕괴 또는 체제 전환을 위한 대북적대 정책의 소산이었습니다. 이 같은 도발행패는 민족 모두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하려는 6.15 공동선언에 정면 배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에 맞서 민족의 존엄성과 자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북·해외 온민족의 공조 투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분에 넘친 성원과 헌신으로 양심수후원회의 계획된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연대집회 등에 함께 하였고 회원 산행, 회원 역사기행, 회원 송년모임, 장기수 선생님들과 이북영화보기 등에 함께 하시며 공동의 목표와 지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초창기로부터 회원으로 한결같은 큰 성원을 해주셨던 범민련 명예의장 신창균 선생님과 고문이신 김병권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한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셨던 정순택 선생님께서 신념의 고향을 찾지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운명하셨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에 북녘 고향을 가시지 못했지만 유해 송환 형식으로 북녘 아드님 품에 안기셨고 애국열사릉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잇달아 민가협 공동의장과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셨던 조만조 어머니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송환을 기다리고 계셨던 전주에 살고 계신 오기태(장재필) 선생님이 급성 폐렴으로 두달째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에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일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이 미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당국에서는 조건 없이 송환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엔 빠른 시일 안에 북녘 고향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심수 후원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스럽게도 큰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 거듭 빌며 회원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평화와 희망의 새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

2006년 새해 아침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 권오헌

전창일 선생님을 만나고나서

인혁당 사건무기수, 그 참담한 역사를 깨나가는 통일행진의 기수

임미영 | 회원

2005년 12월 27일, 박정희 정권의 악랄하고 기만적이고 부도덕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인혁당 사건이 있은 후 30여년이 지나 사법부는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다. 법정에는 그날 인혁당사건의 유족들과 후원자들과, 사법부의 명예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권력으로부터 참살당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첫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환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재판장의 전향적 의지가 엿보이는 개시 판결문이 낭독된 후 법정을 나선 기자회견장에서는 유족들은 통한의 울음을 터뜨려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하였다. 법원에서 나와 울분과 회한과 또한 희망을 가지고 멀리 대구 영남지방에서 새벽에 버스로 상경한 유족들은 후원회원들과 기자들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 서대문 형무소는 관광명소가 되기에는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이라 흔쾌히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곳이었다. 그곳의 가장 웅대진 곳에 위치한 옛 사형터는 마치 그날 것처럼 끔찍하게 죽음을 당한 원혼이 차가운 입김이라도 내뿜는 듯 유난히 바람이 매섭게 불어 모두를 새파랗게 질리게 했고 유족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생전의 이름들을 부르며 오열했다.

이틀이 지나 인혁당사건의 무기수로 10년 옥고를 치루셨던 전창일 선생님과 만날 약속을 하고 종로5가에서 다시 만났다. 전날 선생님 택으로 가기로 한 약속을 어긴 나로서는 한창 바쁜 중에 시간을 내주신 것이 여간 죄송스러운 게 아니었다. 게다가 이야기를 나눌 마땅한 장소를 알지 못했는데 장소까지 마련해주셨다.

민화련 사무실에 가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는데 여든에 가까운 연세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활기차고 진지하든지 마치 선두에서 긴

행진을 이끄는 기수같았다.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일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선부른 피해의식이나 자기 고통에 대한 모호한 판단은 오히려 더 큰 오류 속에 빠지게 된다고 지체없이 말씀을 꺼내셨다. 선생님은 1928년 11월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셨다 북청하면 노래말처럼 물장수가 떠오르는데 그것은 가난해서라기보다 유독 그 지방 사람들이 교육열이 아주 높아서 그 밑천으로 삼으려고 물장수를 하였다 한다. 그곳에서 공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하고 47년 혼자 서울로 내려왔다. 지금은 돌아가신 지 만 2년이 지난 부인과 사이에서 딸 셋을 두었다. 부인 임인영님은 민가협 초창기활동가로서 후원회와는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이다.

권오현회장님과도 아주 각별한데 유치장 안에서 공권력과 맞서 싸우는 여사님을 본받아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자랑할 정도였다. 열아홉 열혈 청년이었을 때 왕래가 있는 장수를 따라 서울에 왔을 때에는 찬·반탁데모에 이어 미제의 책동으로 단정수립에 목을 매단 이승만과 김구선생의 결별 그리고 그 유명한 48년 남북연석회의와 그 연석회의에서 결코 나라가 분단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김구선생이 미제와 이승만에 의해 암살되고 말았던 그야말로 좌우대립이 극에 달한 때였다. 선생님은 몽양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생애 처음으로 종로유치장에 간헐으나 학생신분으로 곧 훈방조치 되었으며 그즈음 학원가의 단정수립반대운동에도 동참하는 등 시대의 불의함에 저항하는 것을 한 시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통일정부수립에 대한 열망에 반해 단정수립은 조국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과 그 대립으로 내전을 유발하고 끝내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6.25전쟁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은데도 아직도 완전하게 이야기되어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셨다. 그야말로 피비린내나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엔지니어로서 건설회사 취직 중 4월 혁명이 일어났다. 단정수립이후 평화통일을 외치는 사람은 모조리 감옥으로 가는 풍토에서 숨죽이고 사는 중에 4월혁명은 그것을 혁파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혁명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7월 총선을 앞두고 혁신세력들은 우여곡절 끝에 선거에 임했으나 당선자를 겨우 7명 밖에 내지 못하고 참패하였다. 사회대중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임했던 당들이 분해되어 사회대중당(김달호) 사회당(최근호-그는 동경2.8 선언의 최연소자로 참여한 주동인물의 한 사람이었고 몽양의 최측근이었다.) 혁신당(장건상-왜정 때 미 일 러 중 만 주 조선 독일 등 해외감옥의 투옥 경험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 통사당 삼민당 등으로 나누어졌다.

특이할 만한 것은 통일사회당은 당수 중심이 아니라 정치위원회와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진보와 민중민주옹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었다. 그 당시 반공 반북이 국시가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당은 국보법과 공안 체제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2차대전 전후의 독일 사민당의 민주당선언(프랑크푸르트선언)이 반소반공사회주의 노선으로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정치 적용어로 정립되는데 그것을 표방하였다. 사회당은 또 삼민당과 함께 민족 민주 민중의 강령을 택했는데 선생님은 삼민당의 대변인을 맡으셨다. 선생님은 특히 사회당의 노선과 성격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셨다.

사회당은 민주적사회주의보다더 진보된 소위 자주적사회주의 -역사적으로는 소련의 볼셰비키당도 사회민주당에 접근하는 것-노선을 표방하였음을 이야

기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명제인 “우리민족끼리”-이부분에서 밀줄까지 치라고 덧붙이신다.-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민족끼리 마주보고 협상을 통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선생님은 스스로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감으로 가슴이 벅차는지 한동안 말을 잊지 않으셨다.

삼민당의 대변인이었지만 이 노선을 존경해 바라마지 않아서 사회당의 노선을 열심히 대변하고 다니셨다. 사회당의 이런 노선은 청년 학생 조직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러르고 따랐는데 민족민주청년동맹이나 통일민주청년동맹 등이 그 조직이었다. 이들은 정당운동보다 자주평화통일운동에 더 열렬하였으며 마침내 혁신세력들이 규합하여 61년 2월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를 결성하였으며 이것이 사월혁명의 주역인 학생들과, 분화되었던 전 혁신세력들의 결속을 가져왔다. 이들 중에서 학생통일민주연맹(4월 의거를 혁명으로 발전시키고 이념화한 중추세력)은 현재의 4월혁명회가 계승하며 4월혁명을 미완의 혁명으로 보고 초지일관하여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일념에 차있다 한다. 선생님은 지금도 가끔씩 그들을 만날 때면 그들이 통일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할 만큼 역사적 권위가 있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권면하기를 잊지 않으신다.. 민자통은 진보세력들의 결속으로 사회당의 영향력에 의해 자주평화민주의 강령을 내세워 통일운동의 최일선에서 전국적 조직이 되었으며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나마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깊게 한다. 61년 민주당정권이 들어서서 미국과 <2.8한미경제협정>을 굴욕적으로 체결하여 대미 예측이 심화되자 이를 반대하는 혁신세력들을 탄압하려 국보법은 물

론 새로 반공법과 집시법을 제정하려 하자 민자통이 중심이 되어 협정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학생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펼쳐나갔으며 2대약법제정반대 투쟁도 함께 하였다

그러나 사회당의 강령이나 노선으로 결속된 진보세력들의 운동이 왕성하자 여타의 진보정당은 상대적 위축감을 느껴서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노선에 반대하고 대안을 냈는데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 때에 영세중립화는 통일원칙이 될 수 없었다. 통일 후 대외정책으로 삼아서 추진하되 통일의 대상은 오직 북이며 그 논의는 강령으로 삼기에는 시기상조였다. 이런 주장이 거부되자 영세중립화조국통일연맹이 조직되고 민자통이

분열되고 심지어 신문에 그 대안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임의로 이름을 발표하여 여러 사람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기도 했으나 서로 아주 적대적이지는 않아서 2대약법공투 때에는 다시 실천운동을 통한 모임에서 언제나 연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혁신세력들은 ‘북괴의 간접침략세력’으로 규정되어 전원 투옥되거나 수배대상이 되는 중에 선생님은 피신하여 구속을 면하게 되었다.

일년 후 쫓수배령이 해제되자 동지들과 수감자들을 집단면회 하는 등 본격적인 옥바라지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한 혁신세력은 수형생활을 통해 사상과 의지를 점검하고 토론하고 굳건한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 유형 무형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인간은 결국 군거동물일 수 밖에 없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만나서 집단적 조직하여 불의에 항거하거나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청학련과 인혁당 등 유신반대운동의 중심에서 구

속자들의 가족들에 의한 저항운동은 회장 공덕귀-윤보선대통령의 부인-여사와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된 김학민님의 부친인 김윤식선생님이 이끌며, 선생님의 부인이신 임인영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유래없는 구속자가족저항운동은 많은 국제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도 하였다. 그분들이 오늘날의 민가협의 효시요 전신인 것이다.

박정희는 1969년 삼선개헌안 통과, 72년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국가보위특별법 제정하여 유신헌법을 선포, 74년 긴급조치1호와 잇달아 4호를 발동하는 등 일련의 초법적 반인륜적 권력의 횡포는 급기야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의 지원세력을 북의 지령에 의한 반국가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고문 감금하고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8명의 무고한 시민을 대법원 확정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고야 마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정권유지에 눈이 뒤집혀 자주민주통일 세력들을 탄압하였다. 선생님은 그런 탄압이 없었던들 오늘날 경상도가 한나라당 일색이 되지 않았을 것임을 확신하고 계셨다.

5.16군사 쿠데타를 씨아이에이의 후버라는 괴물이 자신이 재임기간 동안 정치공작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들었을 정도였으니 그 하수인이었던 박정희의 만행이 어디 그것 뿐이었겠는가. 긴급조치4호의 발동으로 민청학련 조직운동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거 검거되면서 선생님은 대구에서 검거선봉을 피해 도망해온 이재문을 집에 피신시키고 있는 중에 중정으로 끌려가 어둔 밤에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됨으로써 길고 고통스런 수형생활이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극동건설에 근무하고 계셨으며 마침 회사의 해외건설공사 수주계획에 대해 준비 중이셨다고 한다. 선생님은 옥에 갇혀서 마음이 무겁고 걱정거리가 태산 같았지만 징역살이를 할

만한 범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만 죄가 있다면 분단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투쟁을 하지 못했다는 차책감만 가득했다고 한다. 유신반대운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내내 안타깝기만 하했다고 ..며칠이 지나자 수감된 학생과 일반인들이 밤낮없이 끌려나가 피투성이가 되어 감방으로 돌아온다는 등 기막힌 소식들만 듣고 있는 중 정보부로 끌려가 취조를 받기 시작했는데 취조실의 몽둥이질과 발길질과 공갈 협박과 회유 속에 64년의 인혁당 사건과의 관계를 추궁당하고 절친한 사람들과 엮어매어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그야말로 아예 인권이나 인격은 모조리 그들의 야만아래 매장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전천후의 폭력과 고문 속에서 마침내 인혁당 사건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정의로운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감옥의 수인으로 내몰았다.

선생님은 인혁당사건의 무기수로 수형생활을 할 때에는 왜 죽지 않고 이리 처참하게 살아서 산 사람까지 고생시키는가고 참담해 하기도 했지만 그 후 살아남아서 민주와 자주통일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살아있어서 이런 과업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노라고그리고 통일은 기본적으로 우리민족끼리 일민족일 국가에 의한 지배는 배제되고 상부상조 공존 공영하는 체제, 상이한 사회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내정에 있어서는 두 개의 정부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창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다.

남북정상간 이루어진 6.15공동선언으로 그런 선구자적인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통일연대 상임고문으로 계시지만 정역살이 9년후 전민련과 범민련의 초창기 창립멤버로 수차례 법정 투쟁과 옥고를 치르셨다. 특히 간첩죄로 12년을 구형받고 법정투쟁을 벌여 1심에서 간첩죄무죄와 1년

6월을 선고받고 다시 2심에서 1년을 선고받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세 따님은 어려운 중에도 부인의 뒷바라지로 대학을 나와 결혼을 하였다. 특히 셋째 딸은 삼민투 위원장과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익히 알려진 허인회님과 결혼을 하였다. 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남편과 또 간첩접선 불고지죄로 수감되어있던 사위를 동시에

옥바라지를 하는 중에 해산한 딸까지 돌보게 되어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볼 수 없었던 부인은 잘못 주사한 알부민의 부작용으로 얻은 병으로 7년여 동안의 투병 생활 중에 2003년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신다.

인혁당 사건은 이미 3년전에 23명 모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살아있는 사람들만 재심청구가 받아들였을 때 유족들의 상처가 더할 수 없이 크므로 유족들의 재심청구를 우선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신다.

2005년 12월 27일 재심 개시 결정 내용설명에 주목할 만한 점은 사법부 스스로가 걸핏하면 북의 지령에 의한 혁명이라는 등의 북에게 뒤집어 씌었던 누명을 벗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온갖 의혹의 중심에 있는 KAL기 사건의 경우에는 김현희가 북에서 파견된 자라 하여 미국이 그 후 북을 공개적으로 테러국가로 지목하였는데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2시간 가까이 시종일관 진지하게 분단된 조국의 현대사 그 중심에 있었습에 역사강좌를 하듯이 고견을 피력해주셨다.

앞으로 인혁당 사건같은 통일을 방해하였던 많은 사건들이 진실을 드러낼 것이며 그것이 곧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일에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므로 늦게나마 선생님께서 그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란다.✱

2006년 序詩

이기형 | 시인

2006년 정월 초하룻날 새벽
 남북 칠천만 형제는
 2750미터 조국 상공 백두산 장군봉 턱 밑 천지 가에서
 진홍빛 해돋이를 우리리
 목청 돋우어 조국통일을 다짐했다
 하나가 될진저!
 하나가 될진저!
 신단수 큰할아버님의 음성이 울렸다
 선열들의 피맺힌 목청이 들렸다
 분명 역사는 앞으로 전진
 통일 대도로 내닫건만
 백년전 가쓰라·태프트 을사오적의 후예들과
 해방과 건국의 화신(化身) '건준'을 짓밟은 친일배족
 수구배들 후손은 필사 가로막는다
 소위 맹방 지도자들은
 북을 테러국가, 악의 축, 폭군, 범죄정권 운운하며
 남북의 통일판을 번번이 깬다
 정의와 진실이 뒤바뀐 말세
 이런 악명 가시관은 되레 미국이 몽땅 뒤집어 써야한다
 북을 목조여 죽이려고

부관참시(剖棺斬屍) 험담을 일삼다가
 오늘은 북핵공격사령부마저 창설한다고
 말기 자본주의 수령에서 발광한다
 남북 민주애국통일자주 역량은
 막강하고 위해하고 천재적이다
 파천(破天)의 기세로
 반역사 반통일 짓거리를 짓부수고
 고구려 났 전진한다
 국회는
 미군 철수를,
 국가보안법폐지를,
 의결해야 한다
 언론도 미군철수를 대서특필해야 한다
 60년을 남의 정신으로 헛살았거니
 인젠 제 정신을 차려야지
 최후 승리는, 단연
 우리 민족민중의 것이다

-2006. 1. 1 서울 서초골에서-

홍세희 | 단국대 법사회학회장

강태운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호남지역의 폭설로 추운 겨울, 우리의 농민 분들은 더욱 더 얼어붙고, 폭설이 한차례 지나가고 나니 예부터 내려온

삼한사온이라는 말처럼 포근했다 다시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왔다 가고는 합니다. 모두가 2006년 새해의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선생님께서는 건강 괜찮으신지 염려스럽고 새해에는 꼭 석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를 후원하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사회학회의 학회장 홍세희라고 합니다.

법사회학이라는 전공과목 강의시간에 ‘국가보안법’에 관한 레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딱 맞는 법이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주·민주·통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고자 했던 많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통일운동가분들을 국가의 체제를 뒤흔드는 활동을 하였다고 말도 되지 않는

죄목으로 구속시켜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한 구시대의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 금강산으로 ‘통일 새로배움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복측 CIQ를 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현대 측안내원이 ‘여기서부터 이북입니다’라고 말해주던 그때 창밖으로 보이던 그 광경.

이북은 이남과는 무척이나 다를 것이라는 20년간의 생각을 뒤집고 이남의 여느 시골풍경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이북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시던 이북 주민들...절도 있는 동작의 인민군들...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만나서는 절대 안 될 사람들처럼 적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간의 금강산에서의 일정은 그동안 제가 살아오며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아 세상을 바라보는 더 큰 눈을 가질 수 있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005년. 지난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국민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키워나갔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교육방송에서 방영된 TV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이남과 이북의 아이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잘 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이남의 초등학교생들에게 이북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선생님께서도 궁금하시죠? 70-80년대에는 이북의 어린이들이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는 그림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린이들은 총은 커녕 한반도를 꽃으로 예쁘게 장식한 그림 주변을 이남·이북의 어린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빙 둘러싼 그림, 그리고 남북어린이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동지들께

이른 새벽 냉기에 깨어 창 밖을 내다봅니다. 라디오에서 지겹게 광고한대로 올들어 첫 눈이 내려 소복히 쌓여있습니다. 밤사이 눈의 무게에 천막이 무너 질까 가슴 졸였을 비정규법안 개악 저지, 쌀 수입 개방 저지, 노동자 농민의 천막농성장이 그리워집니다. 저는 하이닉스 매그너칩 사내하청 투쟁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직부장 김용직입니다.

비정규투쟁답게 치열한 투쟁으로 항소심 역시 1년 6월의 원심이 확정되었네요. 더 이상 자본의 법에 기대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상고를 포기하고 기결로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있는 하청동지들은 현재 1년이 넘게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며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동지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동지에 감사드립니다.

이소선 어머니, 이한열 열사 어머니, 강경대 열사 아버님 등 항상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시던 민가협 동지들의 투쟁을 면발치에서 지켜보며 항상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과 끈기에 가슴이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갇혀있을지 6개월여... 동지들의 따뜻한 돌봄에 다시 한번 가슴시린 동지애를 느껴봅니다.

앞서 사셨던 동지가 그러더군요. '적들이 우리를 가두는 건 교통과 격리의 참혹함 속에서 무기력이라는 체념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 이라고. 따라서 이 안에 갇혀 있는 우리는 그 교훈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들이 무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그래서 이곳 생활을 즐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밝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들이 원하는 무기력과 체념이 아닌 내일을 위한 휴식과 충전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동지들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12.4 김용직 드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동지들께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3년 이곳저곳에서 노동자와 농민 열사들이 만들어졌고 열사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구속되었는데 올해도 또다시 열사들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열사제조 정권임이 틀림없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올해에만 두 번의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더니만 농민들의 투쟁에는 무지막지한 폭력을 사용해 두 명의 농민을 사망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간혀있다는 것이 이렇게 원망스러울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벽을 치며 답답함을 삭히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이 부디 올해가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없는 일이지요. 노동자, 농민 해방은 우리들의 투쟁에 비례함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저 희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백배 천배 더 노력하고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전을 한해도 동지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 속에서 깨끗하게 잘 살아내었습니다. 내년도 더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20 대전교도소에서 구재보 드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동지께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서 가열찬 연대와 함께한 동지애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저보다 밖에서 활동하시는 동지들이 더욱 힘들 것인데 제발 건강 잃지 마시고 자본주의 끝장내고 노동해방 쟁취하는 통일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하길 바랍니다. 이감 후 소식 전하겠습니다.

- 1221 부산 구치소 이문희

권오현 회장님 전

2005년이 저물어가고 2006년이 다가옵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회장님을 비롯한 후원회 여러분께 그 고마움을 이 연하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어 빛나는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 2005.12.5 강태운 -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가협 식구 모두들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학명 -

양심수후원회 그리고 장기수어르신께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어느덧 막바지입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내며 수십년 세월을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워오신 장기수선생님들의 궤적을 그려 봅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힘이 드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걸음이 역사에 이로 새겨졌 듯, 지금 저의 고통도 그 길위에 서있다 확신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2006년에는 통일된 조국에서 손맛잡고 노래부르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 2005.12.16 의정부에서 유호근 드림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그리고 권오현 회장님께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야 그간의 관심과 도움에 인사를 할 생각을 합니다. 제 게으름으로 생각만하다 그새 많은 날들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된 한 해를 돌아보고 새 한 해를 다 품어보는 이 때조차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이 바쁜 시간인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격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더 깊어지겠다는 목표를 가지며 시작했던 감옥 생활이었는데 여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동안 고생한다며 마음 함께 해주시려 한 점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영치금도 잘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깊은 발걸음처럼 선생님이 계시어 힘들 때마다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눈 것보다 받은 사랑이 더 많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 2005.12.25 염창근 올림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님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분단의 장벽, 봄벌레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온겨레 환희로 물결칠 그날을 맞이 하렵니다. 겨레 하나 되는 길에 우리 모두 다함께 합시다.

- 2006.1.1 서울구치소에서 전옥용 올림 -

우리에게 쌀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조현수 | 회원(전농 청송군농민회)

2006년, 특별히 희망에 부풀 나이는 아니더라도 세
 해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음
 은 무슨 까닭일까?혹시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
 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최소한의 희망마저 없다면 어찌 살수 있을까? 그러
 나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
 나고 있다.

이 땅에서 농민으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
 마나 많은 절망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임을이제는 너
 무나 많이 보고 느끼고 있다.

작년 11월 15일에 있었던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으로 두분의 농민들이 우리 곁은 떠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셨다.

더구나 그 전용철 농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신들
 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청와대의 노무현은폭력시위가

문제라면서 본질을 흐렸다. 농민사망의 원인은 경찰
 의 폭력진압이고, 폭력진압의 원인은 시위대의 폭력이
 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위의 원인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국회도,
 언론도 별 관심이 없는듯 하다.

시위의 원인인 쌀 개방에 대해서도,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는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정작 농민을 죽인것
 은 노무현이고, WTO이고, 미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는 모두들 합의를 한듯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제나라 농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남의 나라(특히 미국)의 금고를 두둑하게 해주
 려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고는 눈을 찢고 찾아 보아
 도 없다.

더구나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싸우다가 천명이라는 농민들이 연행되었을 때
 도 정부는 마치 남의 나라 일인듯이 신원보증을 해주
 지 않아서 홍콩 천주교 대주교와 교민의 보증으로 나
 올 수 있었다.

이것이 어찌 국가인가? 제 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어찌 국가일 수 있을까?

어제 1월 3일에는 미군들의 기지확장을 반대하며
 올해도 내 나라 땅을 지키며 농사짓기 위해 엄동설한
 에 10박 11일의 일정으로 트랙터를 타고 전국을 순회
 하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내 땅에서 미국놈들의 군화발에 밟혀 죽고, 탱크에
 깔려 죽고, 이제는 살고 있는 땅에서조차 내쫓기는 현
 실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까?

농민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밥이 하늘이고 하늘이 밥이고, 농민이 하
 늘이라는 말은 먼 옛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통
 용되는 진리이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먹을거리를 먹고 사람들이 살아
 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은 아니지만 없으면 살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희망이니까.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에게 쌀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비록 희망의 싹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싹이 자

라나서 뱃은 열매는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에
지금의 괴로움을 묵묵히 견디면서 오늘도 눈,밭으로,
아스팔트로 달려간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아스팔트 농사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힘닿는데 까지 싸
워야겠다.
'미국놈들 몰아내고 올해도 농사짓자'는 팽성 농민
들의 구호에서 눈물과 희망이 엇갈린다.❦



알림니다

2006년 2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안내입니다.

- 일 시 : 2월 14일 (화) 오후 6시
 -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 작 품 명 : 민족과 운명 제49부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편 제2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1년제작, 90분상영)
 - 줄 거 리 : 애국과 반역은 곧 혁명적 신념을 지키는가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 한 영화이다.
●경심은 분화의 편지를 통해 분화의 시집식구들의 이야기를 접한다. 분화네 시집식구들은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검소하고 소박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청탁뇌물을 받아오기 시작했고 자식도 좋은 물건을 탐하기 시작하면서 분화네 가정은 점점 재물욕심을 빠져들어 가기 시작한다. ●한편 경심의 아버지 차금석은 전쟁 중 물욕에 빠져서 조국을 배신한일로 괴로워한다. 경심은 송숙 남편의 연구논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 ※ 문의: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2005 회원송년회 결산

한해 동안 양심 수 후원회를 물심 양면으로
이끌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민가협 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선생님들과
어머님들, 회원 150여명이 함께 모여 지난
일년 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일 오신 회원 분들의 회비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결산 보고
드립니다.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입	회비수입	2,970,000
	지출총액	2,419,700
지출	[지출내역]	
	떡	130,000
	선물(양말)	80,000
	마른안주	54,700
	식대	2,050,000
	선생님들 차비지원	80,000
	콜밴	25,000

농성장에서 만난사람

임미영 | 회원



“ 불편한 장소와 나의 산만함이 님의 치열한 노동운동가로서의
 궂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였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여긴다.
 긴 겨울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님에게 성원을 보낸다.
 화이팅! ”

지인으로부터 노동법개악저지 농성 중에 있는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대표인 양규헌님을 소개받은 후 나흘이 지나 다시 천막농성장을 찾았을 때에 님은 계속되는 한 파에 시달린 탓인지 감기 기운으로 며칠 전보다 핏색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현 정세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비정규직)을 위한 권리법이 정작에 비정규직노동자를 소외시키고 국회교섭단체간 양보와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의 수순에 들어가자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여의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렇게 노동자의 권리 쟁취 투쟁이 엄동설한이라 하여 움츠려들 리 없지만 바로 곁에, 기왕에 잡은 권력 앞에 민의고 정의고 신념 따위는 권력의 단맛에 혹하여 내버린 의원나리들의 배부르고 등 따슨 집일 뿐인 국회의사당이 자리 잡고 있는 바에야 어쩔 수 없이 천막농성장은 쓸쓸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국회야 그렇다 치더라도 투쟁을 성원해야 할 형제요 동지인 여타의 노동자-자본의 속성에 물들어 물질문명에 대한 어쭙잖은 향유가 자신들이 노동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양으로- 들은 그저 불편한 심기를 어찌지 못해 아예 외면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할 뿐으로 농성자들은 더욱 단호하게 외친

다. 앞으로 나아가자고! 희망을 가지라! 님은 적어도 그랬다. 오직 노동자의 해방공간을 위해서 어떤 악조건에서든지 그런 세상을 위한 길을 이탈하지 않고 언제나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님은 그저 숨처럼 부드러워 보이지만 안에는 거름 좋은 밭에서 거둔 단단한 씨앗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을 맞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며 금방 알게 된다.

1952년생인 양규헌님은 지금 든든한 후원자이기를 한 시도 그치지 않은 부인과 장성한 두 아들을 두었다. 청소년시절에 수재였던 형이 군생활 중 병사하게 되자 그런 형을 닮으라고, 그래서 아까운 나이에 죽은 형의 한 이라도 풀라고 고향에서 상경하게 되었다한다. 남달리 영민하고 조숙했던 님은 일찌감치 공장 생활 - 그 당시 성수산업이었던 가발 섬유 및 벽돌제조 - 을 골고루 체험하였다. 알다시피 당시의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하여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짝이 없을 때였다. 아남산업이라는 곳에서 수저 연마 일을 할 때에는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쉴 새 없이 일하고도 따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커먼 철재 가루에 뒤덮인 공장바닥에서 잠을 자고 다시 일하고 집에는 겨우 주일에 한 번이나 갈 수 있었다. 공장노동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인데다가 그들은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현장에 유기되다

시피 내던져졌다. 한 번은 동료의 기계조작 잘못으로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위중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치료과정에서 보여준 사측과 의료진의 비인간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남은 반항적인- 순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차린 것이다 - 학교 생활을 했는데 졸업 후에도 가발 공장에 들어갔다가 직원과 다툼 끝에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게 되어 일종의 도피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도피생활을 한 농촌에서 그 당시 농촌 계몽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4에이치 구락부에 들어가 성실성을 발휘해 6개월 후 회장을 맡기도 했다한다.

1년 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다시 상경하게 되고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문학교에 들어가 무선전자 통신을 전공하였다. 이후 1978년 동일방직의 오물투척 사건 등 노동자가 이 나라의 경제발전의 큰 몫을 담당하고도 정권과 영합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다다른 때에 대우전자의 부품회사에 입사하였다. 입사 조건에는 당연히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남은 지혜롭게도 그런 부당한 조건을 거부한 채 입사하였다.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피시보급이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회사의 기술부 연수 계획에 따라 일본으로 연수를 가게 되었으며 그 계기로 씨피유회로와 컴퓨터조작기술을 일본에서 도입해 배우게 되었다. 78년에 이르러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 조건이 안정되자 지체없이 노조에 가입하여 가장 핵심적 사안이었던 임금투쟁이나 그 투쟁을 위한 전술을 고민하고 또 지금의 민주노조와는 조직의 구성이나 전술 전략이 다르게 직반장으로 구분되어있는 노조의 대의원 조사통계 부장을 맡아서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해나갔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의적 명분아래 내부의 민주적 질서와 심화 학습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본에 투쟁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남은 노조활동에 전념하였다.

80년 4월 한국노총 연맹이 사측의 하수인이 되어 철저하게 사측에 빌붙어 노조 탄압에 앞장서자 여의도의 한노총위원장사무실에서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30여명의 점거 농성이 시작되자 남은 지도부와 합류하여 방용석(원풍모방) 등과 더불어 3교대를 해서 한 조씩 농성장 지킴이로 나서 노동3권의보장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투쟁 등을 요구하였다. 그 점거 농성은

5.17일 계엄군에 내몰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79년 12.12 쿠데타에 이어 80년 5.18광주항쟁 이후 전두환의 가공할 폭정 속에 노동현장의 농성을 주도하거나 사회적 파렴치한 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불량한 시민과 사회악으로 분류되어 삼청대에 끌려가거나 감옥으로 끌려갔다. 이런 야만적 반민주적 상황에서도 남은 꺾이지 않고 11월이 되면 강변에 집회신고를 내고서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산중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전태일 열사의 추모제를 비밀리에 열어 열사의 정신을 받들며 민주노조의 발전의 열망하였다.

남은 9년 동안 줄곧 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는데 한결같이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무엇보다도 남은 청소년 시절에 익힌 기타와 자신이 심취하였던 락을 활용하여 학습과 유희를 통하여 조합원 상호간 인간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나아가 연우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그 구성원들로 풍물과 노래패를 조직 - 88올림픽체육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거기에 민중미술과 노래 풍물 연극 문학 탈춤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밤낮없이 그 일에 매진하였고 아예 기획팀을 운영하여 노조원들을 위해 다양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현장실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미술 풍물 등의 각 팀 7명의 연우회 팀장이 결합하여 정치적 소모임을 가지고 철저한 학습과 토론을 거친 120명의 고도로 훈련되고 정예화된 노조원들이 투쟁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노동운동을 하였다.

85.6년에는 광주 항쟁 현장을 담은 비디오 등을 조합원들에게 상영하여 전두환 정권의 살인 만행과 부도덕함을 알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남은 또 ?을 운동가로 편곡하여 노래책을 펴내기도 했는데 상층 지도부를 조직하여 기습적 가투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동지들을 격려하고 고무하는데 적극 활용하는 등 학구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중적 노동운동을 실천하였다.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지 10년 째가 되어서야 노조위원장을 맡게 된다. 87에서 89년에 일련의 노동자 총파업 대투쟁이 있었다. 노동자의 3분의 1이 집단적으로 참가하고 3300건에 달하는 파업투쟁을 벌임으로서 노동자가 생산의 원동력이며 사회변혁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은 올림이라는 광주항쟁과 노동운동가가 집약되

어있는 100페이지에 달하는 노래책을 만들어 4000부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인쇄 과정에서 인쇄소의 신고로 잡혀 들어가 노총가 선구자 상록수 등 주옥같은 노래말로 엮어진 노래책을 태우기로 하고 풀려났다. 크리스마스 행사 때에는 문학의 밤을 주도하고 노래자랑대회열기도 하였다.

1990년 1월에는 한국노총의 노사협약주의와 어용적 비민주적 노동조합을 극복한 자주 민주적 노동운동 전개 경제 사회 구조의 개혁과 자주화 민주화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제민주세력과 연대할 것을 강령으로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님은 전노협의 수석부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과도한 업무로 막대한 열정을 완성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중노래패들과 깊은 교류를 가져 자신의 음악적 열정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 - 곧 금융세계화의 시대에 초국적 거대 자본에 대항하는 힘이 약화되고 노동자들과도 중심과 주변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어져 투쟁은 지리멸렬하고 노동자 자신이 쟁취해야 하는 권리임에도 너무 쉽게 자본주의의 속성에 동화되고 마는 경제적 예측이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밀려나 있다.님은 그런 현실을 고민하고 숙고하여 결국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이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노동조합(한국노총)과의 투쟁 일선에 서게 되었다고 한다. 1995년 11월에 민주노총이 출범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 민노총 내부의 정치적 성향의 대립이 심화되어 노조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한노총의 부조리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 비리와 사회적 합의주의가 만연하고 그러자 노동자는 체계적 교육에서 소외되어 의식의 결정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정신과 물질적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 상층 지도부가 올바른 사업계획과 노동자들이 공감하는 학습이나 유학의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자 노동자들은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의 기회에서 단결하지 못하게 되는 마는 것이다.

전노협은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라는 기치아래 모여 있으며 그것을 민주노동당이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조차 의회주의에 물이 들어 긴장감을 잃고 강령의 이

행에 불성실한 나머지 지난 보궐선거 때의 참패(울산지역)는 결국 명분을 잃으면 대중의 관심과 힘이 집중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님은 90년이후 여러 차례 구속 수감되기도 했는데 98년에는 잠깐 노동운동을 접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으나 2000년 다시 제3자개입법으로 법정 구속 수감되었다가 풀려나온 후 비정규직철폐운동을 시작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체노동자들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대한 자본가들의 교묘한 술수로 노동착취가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12월 8일 민노당이 기간제입법안의 수정안을 내놓으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민노당이 내놓은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법개악저지라는 원칙 속에 노동법개악에 대응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쟁취약속을 저버리고 후퇴안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다.

불안정노동자철폐연대의 저항은 민노당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한 그들이 입장이 노동운동의 비정규직 권리쟁취 입법안의 기준이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확산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전제를 버린 민노당의 수정안은 그 후퇴선이 한 번 무너지면 붓물 터지듯 시종 양보에서 양보로 나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노동법개악의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에서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런 점에서 쟁취를 위한 교섭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함정일 뿐이다. 노동법 개악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안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파견법을 개악해서 간접고용을 늘리겠다는 자본가들을 위한 법적 장치이다. 권리입법 쟁취는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 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악안을 저지한 상황에서 권리입법 쟁취는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의 역사는 개악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자본과 정치권력자들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포장된 노동개악법에 대한 반대투쟁의 선두에서님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한층 강화된 투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편한 장소와 나의 산만함이님의 치열한 노동운동가로서의 궤적을 다 담아내지 못하였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여긴다. 긴 겨울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님에게 성원을 보낸다. 화이팅!!!!!!!!!!!!!!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장석원 | 전국철거민연합 연사국장

연일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속에서 철거민들은 비닐 천막마저 강탈당하고 길거리에서 살 속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온몸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용산동5가 철거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투기를 일삼는 건설자본의 횡포로 길거리로 내몰려 수도와 전기가 차단되고 연일 구청직원들에게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당하면서 어린 아이(초등학교1학년짜리와 유치원생)와 함께 날바닥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떨 때는 추운 날씨에 마비되어 가는 언몸에 놀라기가 일쑤지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강제철거가 없고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다시금 머리를 메고 용산구청앞에서 매일 집회를 통해 주거권 보장과 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실상등 현실적이지 못한 주택정책을 폭로하는 투쟁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강제철거를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은 비

단 용산동5가 철거민뿐이 아닙니다. 인천의 주안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주안주공 아파트 세입자 철거민들은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철거깡패들에게 두들겨 맞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철거깡패들은 여느 철거지역에 상주하는 깡패들보다 폭력적이고, 부녀자들에 대한 성폭행을 일삼곤 하는 만행을 대낮임에도 버젓이 자행을 하곤 했습니다. 다른 말들을 두고 있는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철거깡패들의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강제이주를 당했고 도저히 갈곳이 없는 철거민들은 주거의 권리를 요구하며 끈질기게 아파트옥상에서 철거 깡패들과 맞서 싸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산수청동에서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120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무력적이고 폭력적인침탈을 자행한 노무현 정권은 그야말로 철거민들의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금 주안주공 철거민들을 경악스런 방법으로 짓밟았습니다. 수청동에서는 고공크레인을 이용해 경찰특공대를 투입시키더니 주안주공 철거민들에게는 사복경찰과 철거깡패들을 투입시켜 연막탄과 최루가스를 난사, 또한번 극악한 수법을 사용하여 철거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당시의 악몽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11세대의 주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려 현재 인천 남구청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자본과 결탁된 행정관청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여주듯 김포 신곡리 일대를 1200여세대의 중대형일반아파트를 짓고자 최소한의 주거의 권리를 요구하는 철거민들에게 납치와 감금 등을 경찰들의 비호아래 자행하더니 결국은 “임대아파트를 보장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철거깡패들을 대거 동원해 썩썩이 철거를 자행, 삶의 공간을 강탈하고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야말로 살고자 바둥대는 밀바닥 서민들을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삶의 벼랑끝으로 점점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곡리 철거민들도 삶의 터전을 강탈당하고 현재 관할 관청인 김포시청 앞에서 주거권을 요구하며 천막투쟁을 하고 있었으나 김포시청측은 지난 11월29일 서부터 무려 3차레나 시청직원들을 동원해 비닐천막마저 강제철거를 하였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한강물이 얼어붙는 강추위가 계속되었지만 김포시청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나마 세워놓은 비닐 천막에 대한 동절기 살인철거를 150여명의 시청 직원들과 중장비를 이용해 인정사정 볼것 없이 폭력적으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철거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항의하는 철거민들에게 철거깡패들 못지않은 폭력을 휘둘러 항의하던 철거민 한분이 시청직원들의 폭행에 갈비뼈가 으스러져 현재 입원치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곡리 철거민들과 용산철거민들 그리고 주안주공 철거민들이 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인근의 전월세는 두배 세배로 뛰게 마련입니다. 당시 살고 있던 곳에서의 전월세로는 도저히 이주를 할수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개발전에 살고있던 보증금으로는 인근의 셋방은 도저히 얻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지어지는 아파트는 고개만 돌려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원거주민들의 재 입주율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며 이런 현실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투기자본들입니다. 주택이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을 불리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두채 세채를 갖고 재산을 늘리고 있지만 개발지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철거민들은 삶의공간을 보장받기위해 목숨까지 걸어야하는 것입니다.

개발에 앞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개발지

역 세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입니다. 즉, 개발과는 무관하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은 보호되어야하며 이와 같은 최소한의 권리가보장이 되려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지역내에 가수용단지를 건립해서 개발지역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당해지구의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우선입주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택정책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뤄 질 때 각종투기는 자연 사라질 것이고 용산의 철거민들이나 주안주공, 그리고 신곡리 철거민들이 겨울 추위에 떨지 않고 천부적인 권리인 주거안정을 이루며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달에 한강물이 꿈꿨 얼어붙었고 바람 또한 날카롭게 불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강추위 속에 난방기구 하나 없이 수도와 전기가 차단된 채 뜨거운 물을 병에 담아 안고 추위를 녹여야하는 용산과, 주안주공, 신곡리, 면목동을 비롯한 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은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위와 함께 찾아드는 일시와 차별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더러운 것들은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개발지역철거민들이 살인적인 강추위에 맞서 노숙투쟁을 하면서까지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습니다

후원회 소식 170호

‘일본 방문기’ 글쓴이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글쓴이가 김수룡 선생님이 아니라 권오현 대표였으며 이시히 히로시 님의 한자이름이 名川寛이 아니라 石川寛이었고 한통련 공동의 의장 이름이 곡동의로 표기되는 잘못이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전국회의 의장 한자이름은 渡辺一夫로, 전 일본철도노조 총연합회 후나야마 모리오 부의장 이름을 후야야마 모리오로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 뉴스툰김휘승



통일뉴스 이성열▶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FAX : 02-888-4470 ■ E-mail : yangsimsu@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기타()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민가협 조사 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타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08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7/11	대구교 86	기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크레인시위	05-05-17	업방, 폭력	1년6월	2006/10	진주교 6	기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7/07	부산교 6060	기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12-29	업방, 폭력	10월	상고중	부산교 874	미결
윤종선	노동자	금속노조하이텍일시지	산재인정 투쟁	05-08-17	특공, 집시	8월	상고중	영등포구 3483	미결
윤태수	노동자	금속노조(조흥은행)	구조조정반대	05-09-08	폭력			서울교 18	미결
김우웅	노동자	기아자동차노조	경제특구반대시위	04-02-22	업방, 집시	2년6월	2005/12	청주교 65	기결
김수억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파업	05-10-04	특공, 치상			수원교 309	미결
이상연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파업	05-11-23	특공, 치상			수원교 302	미결
송종찬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맥아더동상철거 집회	05-11-11	특공			인천교 5005	미결
김재경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맥아더동상철거 집회	05-11-17	특공			인천교 5016	미결
채장식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맥아더동상철거 관련	05-12-05	특공			인천교 5006	미결
박상욱	노동자	민주노총(전남동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관련	05-11-08	업방, 집시			순천교 102	미결
장종익	노동자	민주노총(전남동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관련	05-10-27	업방, 집시			순천교 264	미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05-06-13	집시, 특공	1년6월	상고중	대전교 1313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추가가소	상고중	부산교 1102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이현중열사 관련	03-12-22	폭력, 업방	1년6월+2년6월	2006/04	대전교 1959	기결
박용규	노동자	(주)동진아공 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6-29	공방	8월	2006/02	경주교 376	기결
엄기준	노동자	(주)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03-12-10	집시, 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이희석	노동자	통일중공업 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9-27	업방, 집시	6월	항소중	마산교 1530	미결
신재교	노동자	하이에닉스 하청노조	노조활동 관련	05-10-21	집시, 폭력			청주교 726	미결
채봉석	노동자	한국케이츠 노조	맥아더동상철거 집회	05-11-17	특공			인천교 5009	미결
김태운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철폐투쟁	05-12-21	업방, 집시			울산교 27	미결
하정기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철폐투쟁	05-12-05	업방, 집시			울산교 9	미결
김대운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철폐투쟁	05-12-21	업방, 집시			울산교 27	미결
김종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투쟁결의대회 관련	05-10-20	업방, 집시			순천교 142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반대 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278	미결
박태규	노동자	화섬연맹	노동자대회(11.9)	03-11-12	집시, 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이태문	농민	전농(남해)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폭력, 치상			영등포구 3493	미결
김종교	농민	전농(순창)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폭력, 치상			영등포구 3429	미결
나현주	농민	전농(의령)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폭력, 치상			영등포구 3416	미결
신재표	농민	전농(해남)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화염병			영등포구 3402	미결
박안영	농민	전농(해남)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화염병			영등포구 3495	미결
전옥웅	일반	개인	북한방문	04-11-18	국보	3년6월	2007/05	서울교 29	기결
이승규	재야	다산인권센터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28	병역법	1년6월	2007/01	김천교 569	기결
이원표	재야	사회당(대전)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1-02	병역법	1년6월	2006/05	대전교 800	기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19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04-06-20	특가법	1년+6월	2006/02	춘천교 451	기결
염창근	재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2-01	병역법	1년6월	2006/06	충주구 654	기결
최 진	재야	작은누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6-28	병역법	1년6월	2006/12	창송제2교 1329	기결
강태운	재야	전 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사건	03-08-15	국보	6년	2007/08	대구교 90	기결
임재성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1-28	병역법	1년6월	2006/07	충주구 865	기결
김영재	재야	전철연	강제철회반대(상도동)	04-01-19	공방, 폭력	2년	2006/01	서울구 76	기결
조영귀	재야	전철연(수원매포)	강제철회반대	05-02-17	집시, 폭력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2658	미결
남현희	재야	전철연(십정동)	청와대앞 1인시위	05-07-04	집시, 폭력			서울구 27	미결
이재남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03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50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58	미결
지광호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17	미결
이영자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157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5-20	특공, 공방			수원구 414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40	미결
강재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21	미결
유경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48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5-03	화염병, 치사			수원구 339	미결
방영철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46	미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15	미결
유호근	재야	희망동네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2-17	병역법	1년6월	2006/08	의정부교 1550	기결
김영식	학생	중앙대	11.15 농민대회	05-11-15	특공, 치상			영등포구 3441	미결
조정연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5-17	병역법		항소중	서울구 2322	미결

01

☛ 민주총이 1일 10시를 기점으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치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앞 한국수출입은행 인근에서 합원 1만 여명이 모여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치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본 대회를 마치고 '파업가'를 부르며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촉구 서한'을 들고 국회를 향해 가두행진 하였으나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강경진압. 부상자가 속출함. 한편, 이들이 행진을 진행하는 동안 화물노동자와 덤프노동자들이 14개 지역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들어감. 정리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으로 이동해 농민들과 연대 투쟁.

☛ 대학로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무효 농민대회 살인진압 규탄 전국농민대회'가 열렸음. 본 대회에 앞서 (정용품, 하신호, 오주옥, 전용철) 열린 합동추모제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해자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농민단체장들의 헌화, 분향과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의 추모사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본 대회는 전농 박민웅 사무총장의 사회로 전농 문경식 의장의 대회사,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전농 경기도연맹 이근방 의장, 충남도연맹 보령농민회 성주연지회 윤철중 지회장 규탄연설, 한총련 학생들의 몸짓과 전북여성농민노래단 '정보리사랑'의 공연, 전여농 윤금순 회장 결의문 낭독이 이어짐. 집회를 마치고 '근조 한국농업신위'라고 쓰인 관을 앞세워 광화문으로 행진함. 경찰이 세종로네거리를 전경버스로 막은채로 열린시민공원 천막농성장으로 향하는 농민 등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소화기로 진압, 추위속에서 다수가 부상당함. 세종로네거리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로 이어짐.

☛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인근에서 세계인권선언 제57주년을 맞아 3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고 전용철농민 살해 규탄 진상규명, 쌀 개방 국회비준 무효,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치, 국가보안법철폐를 내용으로 '제1회 인권주간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음.

☛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2006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인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종철 전국연합 상임의장의여는말, 이규재 범남본의장, 미국에서 온 범민련 미주본부 유태영 공동의장 등 결의발언, 한상철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이 선언문은 국가보안법 제정 57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의 민주인사 6,745명이 연명했고 양심수후원회에서는 74명이 함께 했음.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보수 신문들의 과거사위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냄.

☛ 민가협 595회 목요일집회.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서경순 전 상임의장의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발언,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 국회 헌정기념관엔 이라크 파병 국민행동과 고진화, 김원웅, 배일도, 손봉숙, 유승희, 이영순, 임종인 의원실 공동으로 '이라크 점령 3년 평가와 파병철폐조건, 자이툰 부대 철수 언제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다. 이날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의 논리'라는 자료집을 내기도 하다.

02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전향장기수승환추진위원회 주최로 지난 11월 24일 급성폐렴으로 입원한 비전향장기수 오기태(장재필, 76세)선생을 비롯한 2차 송환희망자들의 빠른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노진민 집행위원장 사회로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의여는말, 이규재 범남본의장,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진광수 고난모임 총무 등 촉구발언과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①올해안에 2차 송환 실시 ②오기태(장재필)노인의 복벽가족확인 문병게하고 ③송환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골송환을 촉구하다

☛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이 건대 병원에 입원하시어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김은, 권오현)

03

☛ 150여명의 청년과 학생,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농민대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에 숨진 고전용철 씨 사건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습시위가 벌어짐. 시위대는 명동 롯데백화점 앞 4차선도로를 기습점거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면서 명동성당으로 행진함. 이보다 앞서, 전용철 농민 살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2백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고전용철씨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문화제가 열림. 문경식 전농의장, 이영순 민주노동당의원 등 추모발언, 류은숙 반미여성회원의 추모시 낭독, 노래패 '신나는 세상' 등 문예공연이 있었음.

04

☛ 단국대학교 학생회관 강당에서 범민련 결성 15돌 기념대회가 열렸음.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대회사,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의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의 축사가 이어졌고 범민련 재일본부 류태영 공동의장, 오영철 부의장, 이화영 대외협력위원장이 해외본부를 대표해 참석해 축사를 하였음. 서청협 대래단 자청비, 노래패 휘파람, 놀이패 '걸판' 등이 문예공연이 있었고 대회장 앞에는 그동안의 범민족대회 등에서 선보였던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음.

☛ 서울 대학로에서 '공무원노조 사수, 특별법 거부, 정치자유쟁취, 민영화 총액인건비제 저지, 민주노동총 가업을 위한 공무원노조 2차 총결기 대회가 천 5백여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림.

☛ 이어 전국민중연대, 파병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총, 전농, 전여농 공동주최로 전용철 농민 타살 규탄식량주권 사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국민대회가 1만여명의 노동자, 농민, 민주노동당, 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림. 권영길 민주노동당 비대위대표의 대회사,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문경식 전농의장, 전재환 민주노동당 비대위위원장 등 각계 발언이 있었고 집회를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광화문으로 행진하였고 서울시의회 건물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대열은 별다른 경고도 없이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려대는 경찰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세종로 네거리까지 진출하여 세종로 네거리를 완전히 점거함. 한편 청년.학생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시위대들이故전용철 농민 사인 진상규명과 쌀개방 대책 마련, 노무현 정권의 사죄와 1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 일민대회를 진압한 경찰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을 기습, 연좌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됨. 10여개 경찰서에 분산 감금 조사를 받다. 급한 소식을 듣고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대표, 중랑 경찰서를 방문. 연행자를 면회하고 경찰당국에 즉각 석방을 촉구하다. 중랑 경찰서에는 안학섭(통일광장), 이성근(범민련 고문), 김규철(범민련 서울시 연합회장), 노수희(전 국연합 공동회장), 송수석(울산 민주노동당 사무처장), 하준태(울산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사무처장), 김정호(민주노동당 평택 안성지구당), 류미영, 권형은(사회진보연대), 유학수 씨 등이 연행돼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소수영, 임미영, 송창학, 이용준, 김재현, 양민철, 임선영, 김은, 권오현 함께 했음.

05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임종인, 이영순 위원실 주최, 민변 통일위원회, 범남본 주관으로 '해외 민주통일인사에 대한 귀국보장과 명예회복을 위한 포럼'이 열리다. 민변 통일위원회 김승교 변호사 사회로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인사말, 류태영 범민련 민주본부 공동회장의 '국가보안법이 해외민주통일운동에 미친 영향'이란 발제 등이 있었고 민변 소속 박갑주 변호사의 '해외 민주통일인사 귀국보장과 명예회복사업 경과 및 과제' 등 발표, 마지막으로 '해외민주통일인사 귀국보장과 명예회복,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문'을 오영철 범민련 민주본부 부의장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이 함께 낭독하다. 마치고 범남본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해외민주통일인사 환송연회가 있었음.

● 광화문 미대사관 옆 KT건물 앞에서 '반전평화미군철수청년학생연석회의(청년학생연석회의)'는 북인권국제대회 개최 세력들을 규탄하고 북인권국제대회의 본질을 대적적으로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과 보수우익세력이 북인권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목적은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음.

● 파주 보광사 역내 연화공원에 안장된 비전향장기수 류락진, 정순덕, 최남규, 금재성, 손윤규, 정대철 선생의 묘비석이 파주 송파 등 HID회원들에 의해 훼손되는 반인륜적 패륜행태가 자행되다. 특히 류락진 선생의 묘비석 파손에서는 유골함이 드러나기도 하다. 현장에는 경찰이 있었지만 불법행위를 막아내지 못하였음. 이보다 앞서 서울 조계사 설법당에서는 실천불교승가회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적 관점과 인도주의자세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이란 큰 틀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함께 이 분들의 유해송환을 촉구한 바 있었음. 그런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사이에 이들의 행패가 있었고 보광사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자 기자회견장에 함께 있었던 비전향장기수들이 보광사로 달려가 이미 훼손된 유골함을 수습하여 서울로 가져왔음.

● 광화문 열린문화공원에서 전국 35개 신입 총학생회장단이 기자회견을 갖고故전용철농민사망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함.

06 -----

● 제5차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SIP)가 열리고 있는 태릉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제5차 한미안보정책 구상회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 통제권 즉각 전면반환,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매항리 사격장 직도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다.

● 통일연대는 사실상 미국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른바 '북한인권 국제대회'와 관련 '반인권 반평화 대북정대정책 즉각 중단하라'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다..

07 -----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재소환 조사함.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국정원에서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조사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전대통령의 직접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조작했다고 밝히다.

●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저지 서울대학교 농성단'은 집회를 열고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 부결과 자이툰 부대 철군을 촉구하며 사발단식 농성을 벌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전국 17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주 보광사 비전향장기수 묘비 훼손 사태를 규탄하고 관계자들의 사과를 촉구함.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전용철 농민 범국민대책위 비상대표자회의가 열리다. 회의에서는 투쟁현황보고와 고전용철 농민 살해진상보고에 이어 앞으로 사업계획으로 12.9일 대규모 촛불문화제, 민족농업수,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노무현 전권심판, 1차 범국민 행동의 날(10일) 투쟁을 결의하고 '고전용철 농민 폭력 살인 규탄, 시민사회민중단체 비상대표자회의 선언문'을 채택하다.

08 -----

● 민가협 596회 목요집회. 이날 집회는 민가협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집회로 재즈가수 강은영의 여는 노래에 이어 1994년 국군전위 사건으로 동시 구속되었던 안재구, 안영민 부자, 1996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동시 구속되었던 박경순, 김이경 부부,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선생이 나와민가협의 그간의 투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꽃을 드림. 투사의 노래를 합창하면서 마침.

●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와 국내 반북단체들이 주관하는 이른바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신라호텔에서 오찬행사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열리게 되다. 이날은 황정엽과 미국보수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잔 쉐티 등의 모략선전연설이 있었고 저녁에는 서울시 주최로 환영만찬이 있었음. 만찬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고 알렉산더 바시바우 주한미 대사, 마이클 호로워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수석 연구원 등이 함께하다.

● 조선중앙방송은 비전향장기수 묘역훼손 사건을 '깡패행위'로 비난하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언론이 보도함.

● 미 대사관 옆 KT건물 앞에서 통일연대,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생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반인권 반평화 대북정체공세 북한인권 국제대회 중

단 촉구대회'를 열다. 범남본 이규재 의장의 대회사, 권오연 양심수후원회장, 한청 박희진 부의장 등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규탄과 이른바 북한인권대회각종단버시바우 미대사의 추방 등 결의발언을 하다.

☞ 통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대안적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미국과 신보수진영의 북 인권공세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토론했음.

☞ 통일연대와 KNCCC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72개 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북한인권대회에 반대하는 인권평화통일 종교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여는말, 오종렬 전국연합상임의장 등 결의발언과 변연식 천주교 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문에서는 <자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다 >북 인민의 인권증진과 무관한 정치공세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다.

☞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전유철 농민 살해규탄 여성행동'(여성행동)은 전국 5개 지역,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수원역, 울산 롯데호텔, 경남도청 앞(진주), 부산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동시 다발로 여성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고전유철 농민 살해와 사인조작 규탄,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주장함.

09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각계 사회원로 500여명이 함께하여 '비전향장기수 모여 해순 각계인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연 양심수후원회장 사회로 유림을 대표하여 성균관대학 양재혁 교수, 유기협 박정기 전 회장, 민가협 서경순 전 상임의장, 전창일 범민련 고문 등의 묘비석 해순 규탄발언이 있었고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문에서는 비전향장기수송환과 함께 유해도 송환할 것을 촉구하다.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와 평택평화대행진 국제참가단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12.11평화대행진에 즈음한 국민여러분과 세계평화애호 민중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전용철 열사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림. 범대위 자체 진상조사단(단장 양길승 녹색병원장)은 전용철 열사가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면서 "(열사가) 쓰러진 것을 목격한 배검 씨 등 당일 고전유철씨의 목격자 10여명의 진술, 당일 경찰의 시위진압 모습을 담은 온갖 동영상 및 사진, 인의협 등 의사단체 및 의사들의 소견,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함.

☞ 9-11일 중국 심양 칠보산 호텔에서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회의에서는 올 한해 활동을 평가하며 명칭 변경과 규약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결과 명칭은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로 결정, 채택되었고 기구의 성격을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의 각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으로 재규정하고, 활동 목적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가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이 규약은 10일 회의에서 통과 즉시 발효됨.

10

☞ 성북구 동방웨딩타운에서 양심수후원회 '후원회소식' 편집위원인 오영순님이 직장동료 김현수님을 맞아아가 부모님과 친지 등 많은 하객의 축복을 받으며 화약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홍콩에서 열릴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를 앞두고 '홍콩각료회의저지 한국농민투쟁단 출범식' 기자회견을 열다. 농민투쟁단은 우리 농업과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다짐하다.

☞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민가협 20주년 기념 열일곱번째 인권콘서트 '보랏빛수건'이 3000여 관중이 함께한 가운데 최광기씨 사회로 열리다. 부천지역 '우리배움터' 공부방 아이들의 세계인권선언을 내용으로 한 여는 노래로 시작해서 크라잉넛, 김중서, 노래를찾는사람들, 이은미, 정태춘 박은옥 등 가수들과 심리분석 전문가 정혜신 등이 출연했으며 도종환 시인은 민가협 20주년을 맞아 '보랏빛수건'을 창작, 낭송하였고 김동원 감독의 민가협 20년 기록 '보랏빛수건'을 상영됨. 양심적병역거부,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평택지킴이 등에 이어 민가협 어머니들, 장기수선생님들 모두 단상에 올라 조순덕 민가협상임의장의 결의발언과 '함께가자우리이길'을 합창하면서 마침.

11

☞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위원회 주최로 농민, 노동자,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성원과 프랑스, 일본, 필리핀 등 외국에서 온 평화활동가 등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2차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이 진행된다. 종물공연 등 사전행사 이어 김지태 평생대책위원장의 대회사,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문경식 전 농의장 등 각계결의발언이 있었고 민주노동당 체육위원회의 태권공연, 민주노동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문예공연, 마지막으로 평화유랑단 문정현 신부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결의문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군기지 확장저지,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반대 등을 분명히 하다. 본대회를 마치고 평택역 앞 5거리-평택경찰서-평택시장- 앞까지 행진하다. 이어 시청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다. 매항리 대책위 전만규 위원장,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유라모 토스즈모 전국사무국장, 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세보베 등 결의발언과 연대발언이 있었고 평성읍이 고향인 가수 정태춘씨의 노래공연에 이어 김선기 전 평택시장, 송명호 현 시장에게 보내는 경고장 낭독, 평택미군기지 확장5적(부시, 참여정부, 국방부,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상여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갖고 촛불문화제를 마쳤다.

12

☞ 이북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11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인민혁명당(인혁당)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직접적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 사죄를 요구했다고 언론이 보도함.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그 책임을 이미 저승에 간 유신 독재자(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만 따질 수는 없다”면서 “죽은 자는 할 수 없지만 살아 있는 자식들(박근혜 대표 등)은 아버지의 죄악에 대해 민족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함.

- 조계사 설법전에서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 공동으로 비전향장기수 모역혜손 및 유골송환에 대한 종교인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향장기수 모역 혜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정부당국에 비전향장기수 및 유골 송환을 촉구하다. 천주교 성심전교수도회 박창일 신부, 고난모임 진광수 목사, 원불교 남성돈 교무,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등의 발언과 경기 평화연대 마조스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1 3 -----

- 전국농민회총연맹은故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노무현 대통령 사과, 근본적 농업회생 근본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문경식 전농의장, 전여농 김옥임 부회장, 구정철 전남도연맹 부위원장 등 10여명이 청와대 인근에서 무기한 노상농성에 들어간다.

- 종각제일은행본점앞 광장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와 전국유족협의회 주최로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추모 전국합동위령제’를 갖다. 이이화 상임대표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박영찬 나주 유족회 고문, 정명근 전주유족회 상임대표 등의 추모사와 과거사법개정 촉구발언이 있었고 정태춘 문화원 박준 가수들의 문예공연 강승희 씨의 진혼무가 있었음.

- WTO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홍콩에서 전농과 민주노총 등 한국민중투쟁단이 세계 각국에서는 5000여명의 민중들과 함께 ‘세계민중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벌임. 이날 전농 소속 농민 150여명이 구명복을 입고 홍콩컨벤션센터가 건너다 보이는 빅토리아항에 뛰어들어 위력적인 해상시위를 벌이다.

-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와 노진민 집행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장석준 사무총장 등을 면담하고 전주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20여일째 혼수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오기태(장재필) 선생이 급성폐렴 증상의 심각성을 말하며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촉구하다. 또한 오기태 선생의 복讞가족 확인작업과 송환전이라도 가족문병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요구하다. 적십자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 광화문 우체국 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영화보기 12월 모임을 갖다. 이번 영화는 ‘민족과 운명’ 17회분-허정순(허정숙)편 두 번째 분이었음.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권호웅 단장 등 28명이 고려민항기로 제주공항에 도착 회담장소인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정동영 남측대표단장의 마중을 받다. 이 날 밤 남측대표단은 이해찬 총리가 주최한 환영만찬에 함께 했으며 이해찬 총리의 환영사, 권호웅 단장의 답사가 있었음.

1 4 -----

-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코스모스홀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주최로 ‘백년을 준비하는 발걸음 북녘교육기자재 지원을 위한 겨레하나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음.

- 경찰청 최광식 차장은 ‘전용철 농민이 지난달 15일 농민시위현장에서 부상당한 점이 확인되었고 당시 집회에서 일부대원(전경)이 방패로 가격을 했으며 농민 다수가 부상해 지휘 책임을 물어 기동단장(이종우 경무관)을 직위해제한다’고 발표하다.

1 5 -----

- 전용철 농민 사망책임에 대한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활동가 5명(평화인권센터 손상열, 이성로, 다산인권센터 박진,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이윤보다인간’ 이혜경 활동가)이 舊남영동보안분실 건물 6층 ‘경찰인권보호센터’ 사무실 건물을 점거하고 허 청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세로 8M짜리 현수막 3개를 내걸다.

-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농업의 근본적회생과故 전용철농민 살해구탄 범국민대책위(전용철 범대위)’는 전용철 농민과 사자마비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홍덕표 씨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면서도 ‘기동단장 직위해제 조치’에 그친 경찰청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말, 문경식 전농의장, 민주노동당 김은진 비대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전여농 김옥임 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친 다음 경찰청파면을 요구하고 면담과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대표단을 경찰병력이 막아서자 몸싸움이 벌어짐.

-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故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식을 가졌다.

- WTO 반대 홍콩각료회의의저지를 위해 홍콩으로 건너간 전농과 민주노총 등 ‘한국민중투쟁단’이 ‘비아캄페시나’(농민의길) 등 국제 반세계화단체 회원 1천 5백여명과 함께 빅토리아 공원에서 홍콩컨벤션센터 인근 빅토리아항 주차장까지 2km에 달하는 거리를 3시간에 걸쳐 ‘3보 1배’를 거행하였다고 언론들이 전함.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 소식 170호 발송작업이 있었음. 문상봉 선생님, 이원호, 이봉주, 노혁, 공은주, 김은 함께함.

- 민가침 597회 목요집회.

1 6 -----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공동으로 ‘6자회담 파탄내고 한반도 전쟁 부추기는 부시와 버사바우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여는말,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등 규탄발언, 반미여성회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청운동 농성장 격려방문.

-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13-16일 까지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9개 항의 합의도문을 발표하고 막을 내린다. 공동보도문은 ①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개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한다 ② Corea 반도의 비핵화와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며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평화적 해결에 적극 협력 ③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새해들어 조속히 열도록 한다 ④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통일적 발전을 위한 남북(북남)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 발전시킨다 ⑤ 남과 북은 새해 음력설에 인도주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06.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 개최 상호관심 인도주의문제협의 2006년 2월에 제4차 이산가족화상상봉, 3월 말경 제13차 이산가족상봉 금강산에서 실시 ⑥ 남과 북은 민족무도인 태권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⑦ 남과 북은 개성지구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협력 ⑧ 남과 북은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에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기로 함 ⑨ 남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2006. 3. 28~31까지 평양에서 열기로 한다 등.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반미청년회 등 주최로 '유엔사 반미청년회 방북불허규탄기자회견'을 열다.

구 남영동보안본실' (가칭 경찰인권기념관) 건물 6층 경찰인권보호센터에서 점거 농성중이던 인권활동가 5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오다

17

해화동 대학교에서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농민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고 전용철 농민살해 노무현정권 심판, 민족농업사수,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제3차 범국민행동의날' 집회를 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30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전농 문경식 의장, 민주노총 전재한 비대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등 결의발언과 전여농 김옥임 부회장의 투쟁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노무현대통령 사과', '행자부장관, 경찰청장 파면', '기동단장 구속처벌과 기동대 완전해체'를 요구하고 광화문까지 500여농민의 햇불을 앞세운 채 행진을 벌였다. 상여를 태우는 상징의식을 겸한 간단한 정리집회 뒤 삼삼오오 흩어져 청와대 인근 농민대표자 농성장에 지지방문을 시도했다 경복궁 지하철역 1.2번 출구 지하도 안에서 경찰에 의해 고립된 청년, 학생 300여명은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하다. 이보다 앞서 대학로에서는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반대 결의대회'를 열다.

WTO 각료회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WTO 반대 한국민중투쟁단 등 반세계화 시위대 3000여명은 홍콩 '헤네스 로드'를 떠나 컨벤션센터까지 행진하는 도중 경찰의 제지 속에 몸싸움이 벌어진다. 경찰은 최루액과 곤봉 등으로 행진을 가로막는 과정에 많은 시위자들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실려가다. 이날밤 늦게 18일 새벽까지 경찰은 시위자 1100여명을 강제연행했고 연행자정에서 구타와 폭언,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유린도 자행되다.

18

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 소속 홍덕표(68) 농민이 "11.15 농민대회" 경찰의 폭력으로 대회참가후 사지마비 등 한 달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0시 40분경 숨지다. 고인은 경수(목뼈) 손상에 의한 급성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문화회관 뒤편 음식점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5년 회원송년모임이 열린다. 사회단체원로, 장기수선생님, 민가협 어머니,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이기욱 부회장의 사회로 경찰폭력으로 숨진 홍덕표 전용철 농민과 민족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권오현 대표 인사말, 오신분 소개, 장기수선생님을 대표해 고성화선생님과 민가협을 대표해 조순덕상임의장의 축사, 양비엔네 수녀님의 한해를 보내고 새해희망을 여는 축배 제의가 있었음. 이어 장기수선생님과 민가협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편지 낭독, 민가협 20주년 축하와 함께 생일을 맞으신 서옥렬선생의 생신축하의 시간을 갖고 다함께 합창하며 마치고 2부에서 준비된 떡, 과일, 고기 등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성경화 회원, 서경순 어머니 등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었음. 한편 이날 송년모임에 함께한 단국대 법사회학회 (회장 이지선)는 양심수를 위한 장터 수익금 110만원을 후원회에 전달하여 큰 박수를 받았음.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인 한국민중투쟁단 900여명이 강제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받은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홍덕표 전용철 범국민대책위는 청운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오후 늦게 '연행자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다. 노수희 전국연합공동대표의 여는말, 오종렬 상임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의 석방촉구 발언이 있었고 함께한 실천단 등 대사관을 향해 즉각 석방을 외치다.

19

국방부 국방부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징집, 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1980년대 전반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강제로 징집, 최전방에 배치한 것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밝히다.

외교통상부 앞에서 '홍덕표.전용철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이 홍콩당국의 한국민중투쟁단에 대한 구속처벌 방침에 대해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인 연행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 즉각적인 전원석방과 안전귀국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 전국연합상임대표의 여는말, 전여농 김재임 순천시 지회장, 문화연대 지금중 사무처장 등 촉구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을 마친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외교통상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이를 거부하다. 참가자들은 이어 효자동 중국대사관으로 이동해 한국참가단 폭행연행.인권유린 규탄하고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연행자를 석방하라", "홍콩경찰 규탄한다" 등을 외치며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다.

경찰청 앞에서 홍덕표 전용철 범대위의 정부의 사과 표명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다. 정부가 홍덕표 농민 사망에 관한 공식 사과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전용철농민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범대위에서 요구해온 행자부장관과 경찰청장 파면, 기동단장 구속처벌, 근본적 농업회생대책 등이 해결된 것이 없음을 지적하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찰들에 포위당한채 진행되었고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던 실천단 역시 경찰청 50m전 방에서 고립된 채 진행되다.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홍덕표.전용철범대위' 주최로 농민,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故 홍덕표.전용철 농민 추모 25차 촛불집회'를 가졌다. 이어 서대문 경찰청 앞까지 "유감표명 필요없다. 경찰청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 경찰청 앞에서 두 시간여 동안 경찰청 규탄 연좌농성을 벌이다.

20

-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용철 홍덕표 농민 범대위는 각계대표, 학생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12월 20일을 '경찰폭력 추방의 날'을 선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다. 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구함.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11.15농민대회'의 경찰폭력을 고발하는 사진전과 영상전도 함께 열림. 이보다 앞서 기독교 목사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폭력살인 규탄을 위한 목회자 기자회견을 가지고 '11.15농민집회' 참가 후 사망한 전용철,홍덕표 농민에 대한 추모기도를 올리고 노무현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촉구함.

-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용철,홍덕표범대위 주최로 250여명의 각 단체회원,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경찰폭력추방 촛불집회가 열리다. 민주노동당김배곤 부대변인의 사회로 전농 문경식 의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유난나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고 '경찰폭력 추방!' 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촛불집회장소를 막고 있는 경찰의 방패와 헬멧, 전경버스 등에도 붙이는 행사를 끝으로 마침. 이날 촛불집회는 전국 59곳 시.군의 경찰청.경찰서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다.

21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고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44개 시민단체가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갖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농민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농민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책임자처벌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다.

-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전용철,홍덕표범대위(범대위)'와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민중행동(민중행동)'은 홍콩 공인당국에 구속된 한국 민주투쟁단 소속 회원 11명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전농 박응두 정책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말, 한국민주투쟁단 소속 전소희 조직담당의 사례 발표 등이 있었음.

22

- 민가협 598회 목요일집회. 이날 집회는 전용철 농민의 형 용식(왼쪽)씨와 전농 박응두 정책위원장, 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들과 함께 故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건과 관련해 진행하다. 여는말 권오현 공동대표, 전용철 농민의 형 용식(왼쪽)씨와 전농 박응두 정책위원장이 나와 11.15농민대회 피해상황과 홍콩WTO반대시위 경과보고가 있었고 다산인권센터 일꾼의 경찰 시위진압의 폭력성에 대한 규탄발언과, 경찰폭력에 대한 박성희 간사의 발언이 이어졌고 인권단체연석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다.

- 미군기지에정부부지로 지정, 중앙토지수용위 재결 등을 거치며 수용이 결정된 팽성 일대 토지에 대한 수용개시일(12.22)을 맞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 드리는 항의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김지태 팽성대책위 위원장의 여는말,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고 평화의 땅에 모를 심고 토지수용공고문을 불사르는 상징의식을 갖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다.

-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전용철,홍덕표범대위' 주최로 노무현 대통령 공개사죄,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현장지휘 책임자 구속 처벌, 서울제1기동대 해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박 3일 500인 집단노숙농성에 들어가다. 문경식 의장 여는말, 문정현 신부 결의발언, 오종렬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비정규권리법쟁취와 투쟁사업장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사례'를 발표하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비정규직 조 활동 탄압사례 집계 결과 '잠정적으로 구속자가 92명, 해고자가 1362명 이상, 손해배상청구액수가 약 1498억 원 이상' 이라고 밝힘.

- '전용철,홍덕표범대위(범대위)'가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위 농민사망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500인 집단노숙농성에 들어가다. 애초 농성장은 청운동사무소 앞 주차장 공터였으나, 경찰이 청와대앞길을 완전히 봉쇄함에 따라 농성자들은 청와대 앞길 차로를 점거하고 2박 3일간의 집단노숙농성을 시작함.

- 로버트 줄릭 미 국무부 부장관은 방미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축소를 요구했다'고 일본 교토 통신이 보도하다.

23

- '전용철,홍덕표범대위' 농성단 120여명은 '홍덕표, 전용철을 살려내라' 등의 피켓과 11월 15일 경찰의 과잉진압 등을 담은 사진을 들고 세종로를 지나경찰청으로 행진을 벌이다.

- 서울중앙형사지법 526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진동 판사) 2년 11개월 만에 재개된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 공판이 열리다. 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쟁취 공대위(공대위)' 주최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감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일본 국공립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오니시이 교수 등이 참가하여 강정구 교수의 재판에 대한부당함과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발언이 있었고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또한 강정구 교수는 '역사의 진실이 냉전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바뀔 수도 바뀌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다. 한편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자유개척청년단 소속 회원 4명이 기자회견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강 교수와 일행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고 뒤 기자회견일 진행되는 내내 소리를 지르며 방해하다.

2 4 -----

● '청운동 청와대 앞길 진입로에서 법대위는 300여명의 농민, 학생,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전용철, 홍덕표법대위' 농성단의 청와대 앞 '500인 집단노숙농성'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다. 이어 광화문으로 이동하여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 타살 규탄 및 경찰청장 파면, 대통령 사과 촉구 촛불집회를 가짐.

● "'한반도 평화실현과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청년연대(청년연대)'가 구성되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청년회, 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반미청년회, 원불교청년회 등은 대한불교 청년회 사무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청년연대 구성을 논의, 확정짓다. 청년연대는 ▲평택 지킴이 모집사업 ▲청년 단체 대표자 선언 ▲매월 1회 거리캠페인 등을 중심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임.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를 위한 평택역 촛불 행사가 100일째를 맞아 천막농성장 앞에 대형 미사일 모양의 철제 탑에 미군기지확장반대의 염원을 담은 촛불연등을 단 대형 촛불 트리를 세우고 촛불행사를 진행하다.

2 5 -----

●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광야교회(담임목사 안병길, 양심수후원회)에서 안병길 목사가 주재하는 성탄 예배가 있었습니다. 농사와 노동(운전)도 하면서 목회를 여시는 민중교회 목사의 '우리 곁에 있는 우리들의 예수' 강론을 들었습니다. 이 성탄 예배에는 종교, 종파를 떠나 불교신자들도 함께 했으며 양심수후원회에서 김호현, 편성범 선생 내외, 김혜순, 이현근, 이상화, 이성재, 신현부, 모지희, 신준철, 신다인, 이용준, 권오현 등 함께 했음.

2 6 -----

● 국가인권위원회는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조사 발표'를 하다. '두 농민은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하고 이종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 범국민 대책위는 서울대 병원 고인의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경찰청장 즉각 파면을 촉구하다.

● 미대사관 옆 KT건물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학생이 모인 가운데 '근거 없는 미국의 북 위폐의 흑제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여는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상명대학 학생의 규탄 발언,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의 미국정부와 대사관에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이 있었음. 발표한 성명서와 미국 정부와 미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대북금융제제가 공동성명의 기본 합의를 위반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으며 이외에도 한국에 유통된 위폐를 북한산이라고 단정하는 근거, 북한 위폐에 대해 증언한 탈북자 K씨가 북한 조폐관련 기관에 근무한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의 질문을 담고 있음.

● 한국토지공사 정문 앞에서 '미군기지확장반대평생대책위'는 중도위와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수용결정을 내렸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 후 해당 지역주민(강권석 외 24명)이 일제히 중도위에 이의신청을 내다.

● 동국대 본관 앞에서 강정구교수사법처리저지 및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한 공대위 주최로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방침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20여명의 동국대 학생, 시민단체 회원이 모인 가운데 열고 강 교수의 직위해제 방침을 철회할 것을 대학본부에 촉구하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말, 동국대 차경은 학생의 규탄발언, 이관용 학생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직위해제 소식을 접하자마자 성명서를 내고 "독재국가가 아닌 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직위해제 결정을 취소하라"고 대학당국에 촉구하다.

2 7 -----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 방침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징계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 교수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아니라 는 점 등을 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무효라고 주장하다.

●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975년 4월 9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도예종 외 8명의 유가족이 청구한 재심판결에서 재심의 개시를 결정을 내리다. 이어서 올중앙지법 기지실 앞에서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는 유가족과 인혁당 사건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힘. 마치고 유족들과 대책위 관계자, 사회단체 회원들은 서대문 독립공원 사형장에 들러 헌화하며 고인들을 추모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임미영, 임선영, 권오현 함께.

● 노무현 대통령은 경찰 폭력으로 두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죄한다'며 '공권력의 행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 달리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쇠पा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죄의 뜻을 희석시키다. 한편, 허준영 경찰청장은 '국민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며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행위자와 지휘 감독자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기제 청장으로서는 거취는 내가 결정한다'고 오만함을 드러내다.

● 이날 밤 서울대 병원 고 전용철 농민 빈소에서는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 범국민 대책위 비상대표자 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 발표, 노무현 대통령, 허준영 경찰청장 등 기자회견 등을 검토하고 28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 파면 등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도 결의하다.

2 8 -----

●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경찰청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기만적 사과 규탄'과 '오만한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오종렬 대표의 여는말, 문경식 의장의 규탄발언, 정광훈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70여명이 그 자리에서 노상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권오현, 노수희, 이천재 대표 등 허준영 청장 파면 촉구 발언을 하다.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자회견장을 경찰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봉쇄해 이를 막으려는 참가자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짐. 한편 전국민중연대 승합차의 강제견인에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는 김우현 씨가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의 방패에 떠밀려 차도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에 치어 광대뼈가 함몰되고 오른쪽 복사뼈가 부러졌으며 강북 삼성병원으로 후송, 오른쪽 뺨 8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고 있음.

- 전국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화를위한반호사모임(반호), 참여연대가 두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허준영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다.

29

- 홍콩WTO각료회의를 저지 시위 과정에서 연행되어 기소된 11명의 한국인과 3명의 외국인에 대한 2차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한국민중투쟁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 즉각 철회와 아무런 조건없는 즉각적인 귀국보장을 촉구하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참가자들은 노란 띠에 홍콩 시위자 기소와 관련해 소원을 적어 중국대사관 앞 새끼줄에 묶는 상징의식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일본, 필리핀, 대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림.

- 전국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국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허준영 경찰청장의 즉각 사퇴를 재차 촉구하다.

- 민가협 59회 목요일집회.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의 여는말, 양심적 병역거부선언자 씨의 발언, 권오현 공동의장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음.

- 경찰청 인근 노상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범대위 대표와 성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허준영 청장의 사퇴에 따라 농성을 끝내고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정부, 국회, 농민 3자 기구 설치 촉구와 경찰기동대 해체, 농민대회 폭력진압 현장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계속 할 것 등 입장과 두 농민 장례일정 등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범대위는 31일 11시 광화문에서 '농민열사 고전용철, 홍덕표 님 범국민장'을 범국민대회와 함께 치루기로 하다.

30

- 국회 앞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파병재연장 부결과 자이툰 부대 철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다. 기규재 범민본 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정문식 서울대 공대학생회장(단식농성단장) 등 결의 발언이 있었음. 한편 국회는 이날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재적 158, 찬성 110, 반대 31, 기권 17로 가결하다.

- 서울청년단체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1차 금강산통일사진대회 '우리민

족청년 새해맞이 통일행사'에 참가하는 200여 명의 청년들이 금강산으로 향하다.

31

- 40여일에 걸친 촛불집회, 노상농성, WTO 각료회의의 저지를 위한 홍콩 투쟁 끝에 농민들의 분노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통령 사과와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를 받아낸 농민들과 유족들은 추모 촛불 행진을 일단락하고 서울대 병원 전용철 농민 빈소와 전북 김제의 홍덕표 농민 빈소에서 발인식을 진행하다. 장소관계로 고인의 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유족 20여명이 함께 기독교식 발인식이 치르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정문 앞에서 조문객들과 다시 한번 발인식을 갖다. 고인의 시신이 모셔진 운구차 앞에 제상이 차려졌으며 보령시 마을 주민, 고인의 친구, 농민회원,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운구차 주위에 둘러서서 합동 추모식을 진행하다. 이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과 각계 지도인사 1천2백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고전용철·홍덕표 농민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故 전용철, 故 홍덕표 님 범국민장'으로 진행되다. 전농 박민웅 사무총장 사회로 민중의례에 이어 충남도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의 약력과 경과보고에 이어 정광훈, 오종렬, 권영길, 이강실 등 범대위 대표의 조사, 이중기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시인의 조시 낭독, 문예일꾼의 열사부활 춤, 전농 문경식 의장의 호상인사말, 고전용철 농민의 형님 정용식 씨, 고 홍덕표 농민의 아들 홍승기 씨의 유족인사에 이어 유족들, 장례위원 등의 헌화가 있었음. 영결식을 마친 후 여의도로 이동하여 농민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15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여의도 문화공원을 출발해 만장과 대형영정그림, 상여를 앞세우고 국회를 향해 묵묵히 행진했으며 국회 정문을 100m넘거 둔 지점에서 기수를 돌려 당시 고인이 치명상을 입었던 여의도 문화공원으로 돌아오는 '노제'를 진행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전재환 민주노동당 비대위위원장, 강춘성 공동장례위원장 등 추도사, '청보리사랑'의 추모노래, 문예일꾼의 추모곡 등으로 노제를 마침. 이어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옮겨 하관식이 있었음. 충남도연맹 조성호 의장 등 추모말, 문경식 전농의장의 인사말 등으로 모두 마침.

- 남북해외 청년단체 회원 등 200여명은 '우리민족 새해맞이 통일행사'에 함께하기 위해 금강산에 모여 2005년 마지막날을 보내다. 오전 온정각에서는 남북해외청년 상봉모임이 있었고 6.15북측위 평양시 청년위원회 한명국 부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음. 오후에는 삼일포 관광을 함께 했으며, 저녁에는 금강산 호텔에서 '우리민족 청년통일의 밤' 행사를 갖다. 남측단장인 서울청년단체 협의회 송현식 의장과 북측의 평양시 학생위원회 명수련 위원, 해외 측에서 재일학생청년연맹 효고현 본부 리준일 부위원장의 인사말, 노래패 '우리나라'의 문예공연 등이 있었음.